

2017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제1차 지원심의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 제1차 지원신청
- 회의일시 : 2017. 6. 27(화) 10:00~13: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1실

가. 2017년 창작활성화 지원사업(대관료 지원사업) 제 1차 공모에는 연극 74건, 무용17건, 음악39건, 전통예술8건 등, 총 13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심의 제외대상 및 지원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단체와 개인을 제외한 뒤,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류검토 및 심층토론 결과, 연극 25건, 무용10건, 음악 17건, 전통예술7건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과정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사전 검토
- 심의제외대상 및 지원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단체(개인) 제외
- 전체 신청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 상호간의 객관적인 정보 공유
- 기본적인 심사 기준 공유. 공연작품의 예술성, 공연단체의 역량,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분야별로 장르적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 공유.
- 분야별 심층토론
- 전체 토론 및 개별채점

나. 기본적인 심사기준 외에도, 장르적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공유하면서 심의를 진행하였는데, 각 분야별 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극 분야

- 대관료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단체(개인) 중에서도, 특히 순수연극을 자체 예산만으로 지속적으로 제작해온 단체(개인)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지역 문화재단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들의 경우, 중복지원의 성격이 강하여 선정 여부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함. 그 결과, 이번 지원사업의 자격에 해당되기에 배제하지 않기로 함. 단, 타 단체(개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금과 후원금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 여러 자료를 비교 검토하면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듭함.

-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개인)들의 경우, 지역연극의 활성화, 저변확대, 그리고 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 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였음.
- 제작 규모, 공연 내용과 목적, 대관 기간, 극장 등에 대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연극성보다는 대중성, 상업성, 사업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번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함.

무용분야

- 수입 및 지출, 예산안 내역 등 지원신청 서류 기재가 미비한 단체를 우선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예산내용 및 공연내용에 의거하여 심사함

음악분야

- 서류 미비, 심의내용 및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를 1차적으로 배제하여 20개 단체를 선정하였고, 이들 중 작품의 예술성 및 단체의 역량 등을 심층적으로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17개 단체를 선정함.
- 지역과 장르를 고려하였는데, 장르의 경우, '앙상블, 창작, 오페라'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심의하였고, 부분적으로 지역별 선정기준을 고려함.

전통분야

- 전통예술의 경우, 연례행사 성격을 띤 공연이 많고 지원의 중복성 등이 있어 활성화가 쉽지 않은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었음
-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공연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결격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하였음

다.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이 가능한 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원금 없이 공연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지원금을 신청한 모든 단체(개인)에게 지원금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단체(개인)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